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칭다오이공대학교 칭다오대학	학 비	순천향대학교 학비
파견지역	칭다오	기숙사비	1일 40원 (2인1실) 150일 일시불:6000위안 (전기세,인터넷비 등)
파견기간	2015.03~2015.07	기타비용	940원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
성 별	여자	학 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5. 7 . 30 .

파견자 : ◇ ◇ ◇ (서 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우선 반은 초급A(2), 초급B(3), 중급A(1), 중급B(1), 고급(1) = 8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고, 중합,틀기,말하기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오후수업은 선택인데 HSK수업도 있고, 서예수업도 있습니다.

제가 수강한 반은 수업과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중합수업에서는 항상 워크북과 단어시험이 있었고, 말하기 수업에서는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반마다 다르지만 4과나 5과가 끝났을 때 마다 중간시험을 보는데, 약간 쪽지시험 같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시험 때문이라도 공부를 하게됩니다.

학생들은 한국,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합니다.

수업 분위기는 5월달이 지나면 공부할 사람들은 꾸준히 나오고 포기(?)한 사람들은 안나오기 때문에 나뉘어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반은 학생 수가 적어서 질문하기도 좋고 발표하는 기회도 더 많아서 좋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시고 학생들 이름도 다 외웁니다!

수업 다 좋았어요 ㅎㅎ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학교는 청도시중심(오월의 바람이 있는 곳)까지 버스타고 2시간정도 걸리는..아주아주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시내까지 나가려면 마음먹고 나갔는데, 꼭 청도시내가 아니어도 버스타고 15-20분 거리에 위치한 '따베이취' 에 짜자위엔이라는 큰마트도 있고, 한국음식점, 맥도날드, 피자헛 등 먹을 곳이 많아서 이 곳에 자주 갑니다. 또 버스타고 10분거리에는 '씨푸전' 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음식점이 많아서 한국음식이 그리웠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901,902번 타고 따베이취에서 2정거장 더 가면 '샤오베이취' 라는 곳인데, '루방' 이라는 곳이 예쁘고 탐앤탐스도 있어서 학교가 시골이어도 답답해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도 슈퍼마켓이 여러 개 있고 중국음식점, 길거리음식도 많습니다.

청도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한데, 건조한 편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 여름에는 시원했습니다. 겨울에는 칼바람+건조해서 피부가 땡깁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1일=40원	내부구조	2인1실
기숙사 규정 사항	밤 10시30분이 되면 문을 닫아서 오른쪽에 있는 문에 카드찍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사항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방 내부사진입니다. 구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입니다. 14층에 끝쪽 방에 있고, 저 세탁기를 모든 유학생들이 다같이 써야합니다.
	냉장고도 깨끗하지 않아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진 첨부

사 진 첨부

사 진 첨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 진 첨 부

사 진 첨 부

사 진 첨 부

교환학생 파견 수기

한학기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중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학교 행사도 많고 여행담당 선생님도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아래 수기는 타 학생이 작성하였습니다.

칭다오이공대학으로 1학기동안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중국의 향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금세 다양한 중국음식에 도전하며 적응해나갔다. 우리 반은 러시아, 태국, 카자스탄, 우주베키스탄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은 4명 있었고, 다른 반에 비해서 활발한 친구들이 많아 단합이 잘되었던 것 같다. 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가 있어서 자기 의지만 있다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동아리를 들어서 매일 4시에 스케이트를 타면서 중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어 동아리나 피아노, 기타 동아리 등 시간이 날 때면 나는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다녔다. 매주에 한번은 학교에서 HSK수업을 오후에 따로 해주어서 듣고 싶은 사람만 와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4월달은 4급, 5월달은 5급 수업이었다. 어디를 가나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인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한학기 동안 가장 많이 만나고, 제일 친해진 중국인 친구는 학교 후문 버블티 가게에서 말을 걸다가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는데, 외국인 친구가 처음이라며 나에게 엄청 잘해주었다. 짜아리랑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같이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놀러도 나갔다.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친구라서 중국어로만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는 문장도 들리지 않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전을 자주 찾지 않아도 대충 소통이 가능할 정도는 되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슬퍼해 주었던 친구여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칭다오 이공 대학교는 시내와 1시간40분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주 나가서 놀지는 않았다. 이번학기 순천향대학교에서 나 포함 4명이 왔는데, 칭다오 주변인 황도와, 제남 여행도 같이 했었다. 5월 달에는 친구도 북경에 교환학생으로 가있어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관광을 하러 갔었다.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가는 것이 처음이라서 많이 무서웠었던 기억이 난다. 비행기시간이 5시간 지연되어 호텔로 이동되기도 하고,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탔던 경험도 있다. 환경이나 사람들의 걸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대화하고, 중국어로 된 간판을 보면서 내가 정말 중국에 있구나를 실감 하며 살았다. 칭다오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한인마트와 한인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음식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특히 습하지 않고, 선선한 칭다오의 날씨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 칭다오로 온 것은 전반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고 같이 온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학교 커리큘럼도 정말 좋고, 환경과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중국인들과 다른 건물의 기숙사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추진하는 여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지도아래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 중국에서 한 학기 지내면서 실력이 엄청나게 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었고, 듣기의 어려움이 조금 줄어든 기분이다. 그리고 중국인 뿐 만이 아니라 태국인, 러시아인, 우주베키스탄인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 이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말이 수월하게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나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각자의 나라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기도 했다. 나는 한국의 떡볶이와 불고기, 오뎅탕을 만들어보았는데, 부족하지만 맛있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들을 한 번에 몰아 받은 기분이다.